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6월 23일(주일) 제1251호



2019 아웃리치 발대식에서 선교사들과
햇볼트리니티 장학생들이 특송을 하고있다.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

성인, 대학청년부, 차세대, CMN, 예수제자학교 아웃리치
해외 189개 팀 3,411명, 국내 170개 팀 5,285명 참가

2019년 여름 아웃리치 달이 올랐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는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를 주제로 진행된다. 해외 189개 팀 3,411명, 국내 170개 팀 5,285명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난다. 성인공동체 해외 85개 팀 1,830명, 국내 74개 팀 3,664명, 대학청년부 해외 47개 팀 712명, 국내 77개 팀 1,240명이 참가한다. 해외 아웃리치에서는 지역 전도, 선교사 위로, 어린이 캠프, 빈

민사역, 벽화 그리기 등을,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어르신 섬김 사역, 마을잔치, 어린이 캠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25일 허브공동체 네팔 아웃리치로 문을 여는 올 여름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주제는 ‘Rushing Wind’다. 차세대사역본부는 ‘모세(Moses) 세 가지 선물’을 주제로 여름캠프와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여름캠프는 부서별로 진행

된다. 파워스테이션 베트남 하노이 아웃리치로 시작되는 차세대 아웃리치에는 해외 17개 팀 308명, 국내 17개 팀 347명이 참가한다.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과 예수제자학교도 아웃리치를 간다. CMN 180명, 예수제자학교 415명이 참가한다.

지난 19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2019 온누리 아웃리치 발대식’이 열렸다. 올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1천8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와 선교를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아웃리치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라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를 쓴 간증문과 사진, 간증을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2000선교본부: 02-3215-3679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다음 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 환경캠페인 실시

다음 주일(30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서빙고역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 환승센터와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이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이 실시된다.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에서는 텀블러를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쿠키를 나눠줄 예정이다. 교회 카페에서는 온누리 텀블러를 판매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은 온누리교회 환경캠페인의 일환이다. 교회가 앞장서서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는 캠페인이다. 문의: 02-3215-3434

대학청년부, ‘FA 17기’ 참가자 모집

서류마감 1차 7월 18일, 2차 7월 25일

대학청년부에서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1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류마감은 1차 7월 18일(목), 2차 7월 25일(목)이다. 면접은 1차 7월 27일(토), 2차 8월 2일(금)에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은 8월 3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합숙 훈련은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다. 훈련을 모두 마치면 9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게 된다. 파송

국가는 네팔, 인도네시아, 일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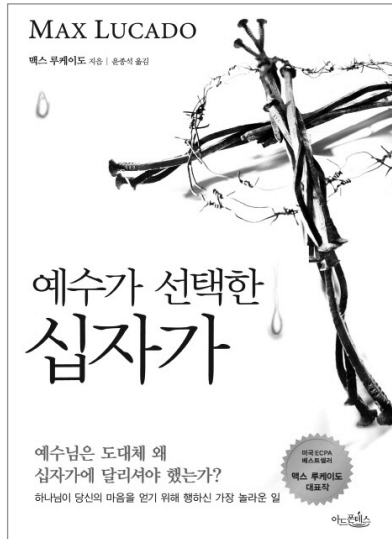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1년 이상)으로 35세 이하(85년생)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추천서(온누리목회자, 공동체리더십,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신청양식은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70-4464-8105, fa@tim.or.kr



책 읽어주는 목사

하늘로부터 온 선물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케이드 저 | 아드폰테스 |
11,000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러하

시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선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이 없다. 하지만 십자가를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선물로 준비하셨다. 이것은 내가 받을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듯이 성경은 선한 사람들을 소개한 책이 아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죄인이다. 우리 역시 그렇다.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직접 죄인이 되셨다. 기꺼이 죄인의 모습을 선택하신 주님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이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을 적대시키는 세력에게 저항하지 않으셨다. 로마 병정의 채찍을 거부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못과 망치를 피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

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주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을 선택한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화내지 않으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까지.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백년도 못가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십자가의 가로 막대는 예수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며, 세로 막대는 예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나타낸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만나

는 곳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십자가의 선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려놓음’이다. 나쁜 순간, 나쁜 습관들, 이기적인 감정과 거짓말들, 고집스런 생각들, 분노의 순간들, 미래의 막연한 불안감들, 인생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온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손이 비어있어야 이 선물을 꼭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다.



유수열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답: “선악과,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품게 된다. 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에덴동산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러한 의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성품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자유가 있을 때만 성립된다. 가령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 된 로봇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로봇에게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를 보여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선악과는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한계가 있는 피조물임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온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다(요15:5).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될 때만 살 수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연결될 때만 살 수 있는 한계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한계적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한

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한 가지 제한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스스로 한계가 있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셋째,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금하신 까닭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창 3:5)라고 했다. 죄의 유혹의 본질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의 핵심은 인간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나쁜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셔도 자기가 보기에 나쁘다고 느끼면 거절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셔도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금지하신 까닭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정리하면 선악과,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며,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기를 소망한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주일강단



이상준 목사

인생은 계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옷차림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계절마다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계절에도 하나님이 담아두신 섭리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들 봄을 살고 있는데 겨울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들에 버려졌던 아이 다윗도 겨울부터 살았던 인생입니다. 일찍부터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세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일찍 인생의 가을과 같은 결실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겨울이 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꽃이 빨리 피면 빨리 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남들은 소망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는 여름 같은 청년기에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러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약관이 조금 넘어서부터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던 예레미야가 그랬고, 4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지내야 했던 모세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들만의 계절을 살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계절과 내 인생의 계절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인생의 계절은 반드시 끝난다

인생의 계절은 반드시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계절도 끝납니다. 아무리 힘든 계절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신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지 분별하고, 그 계절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것인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과 자연의 계절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은 계단 같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완만한 경사로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초봄이 있고, 늦봄이 있고, 초여름이 있고, 한여름이 있습니다. 서서히 완만한 경사로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계절은 계단처럼 급변합니다. 자연의 계절과 인생의 계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일정하게 찾아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일정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계절은 계단이 아니라 등산로와 같습니다. 완만한 구간이 끝나는 순간 수직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한 구간의 길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앞날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구간이 언제 끝나고 그 다음 계단으로 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지쳤습니다. 만약 고난의 계절이 언제 끝날지 알았다면 그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의 계절과 나의 인생의 계절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계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만이 바꾸신다

인생의 계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십니다. 한 자리가 너무 오래되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내 맘대로 그 다음 계단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훈련 기간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았습니 다. 결국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드로 도망갔다가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됐는데 떠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주실 때 즉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다음 시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시면 인간이 버티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인생의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40년 만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고, 적응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겨울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또 다른 광야로 40년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40년과 이후의 40년은 달랐습니 다. 허무와 낙심 가운데 살았던 이전의 40년은 흑한을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전과 헌신으로 살았던 이후의 40년은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던 뜨거운 여름을 사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의 계절이 길어지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급격한 변화의 때가 올지 모릅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고, 언제 여호와와 같이 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책, 직장, 인간관계 등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주저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삶이 갑자기 변한다고 해서 위급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직책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직함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질이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갑작스럽게 다음 계절로 가게 됩니다. 영적 무게 중심을 잡아야만 인생의 계절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인생의 계절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시즌과 비시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힘써야 할 것을 붙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시즌과 비시즌이 다 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의 헌신은 내가 결단하고 드려야 합니다. 내일이 온다고 막연히 핑크빛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3절).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인생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것은 맞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늘 푸른 상록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계절에만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비시즌에도 변함없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시즌이 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아 붓는데도 시즌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시즌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시즌을 주십니다. 비시즌에 포기하

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좋은 결실의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루를 주셨고, 동일한 일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매순간이 최고의 기회이지만 최대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각자가 선호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계절뿐만 아니라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계절이나 나쁜 계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절에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이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인공수로 가에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절이 와도 죽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도록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 다양한 계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계절은 수월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계절은 숨이 막힐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서 뽑히면 죽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계절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시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하고 멋 있어 보이는 계절들을 좇아서 시냇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 곁에 머무는 헌신을 드리십시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의 헌신은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지켜내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비시즌을 살고 계신 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경기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내 인생이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올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계절에 상관없이 본질에 충성되게 살면 좋은 계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계절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가치를 붙잡고 시냇가에 머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계절은 변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자녀교육 ‘홈스쿨링’

가정에서 실시하는 자녀교육 ... 신앙전수가 목적 네트워크 형성해서 사회성 발달과 유대감 보완해야

이만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안교육도 없을 것이다. 홈스쿨링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홈스쿨링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홈스쿨링 한다고 하면 “유난 떤다”고 하거나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인식 전환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홈스쿨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다. 어떤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느냐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자녀교육 ‘홈스쿨링’에 대한 오해와 장단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홈스쿨링은 말 그대로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다. 홈스쿨링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아빠는 교장 선생님이 되고, 엄마는 교감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홈스쿨링이 신선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다. 200~3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육을 책임졌다. 그러니 홈스쿨링이 학교 교육보다 유서가 훨씬 깊다.

홈스쿨링에 대한 평가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에서는 1993년까지 홈스쿨링이 불법이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홈스쿨링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금도 홈스쿨링이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안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학부모의 교육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자녀를 홈스쿨링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은 ‘취학의무면제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00여 가정(2016년 기준)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대부분 크리스천 가정이다.

홈스쿨링에 대한 세 가지 오해 교육의 질, 대학진학, 사회성 발달

올해 초 벌어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홈스쿨링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대안교육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달에 60~70만원에 달하는 유치원비에 비해 훨씬 저렴한 교육비가 드는 것도 홈스쿨링의 또 다른 매력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가구 대부분이 크리스천 가정이다. 성경적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의 신앙, 성경적 세계관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장점이다.

홈스쿨링에 대한 오해는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성경적 교육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크리스천들은 홈스쿨링을 효과적 교육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홈스쿨링을 반대하는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질 문제’, ‘대학진학 문제’,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을 홈스쿨링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홈스쿨링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논의가 끝난 부분이다. 홈스쿨링의 대표적인 단점 세 가지에 대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홈스쿨러들과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학업성취도가 같거나 오히려 높았다.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에서도 미국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연구했더니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2009). 또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대학진학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결코 낮지 않았다. 국내에서 홈스쿨링하고 있는 학생 70%이상(이민경, 2010)이 대학에 진학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69.5%다.

홈스쿨링의 장점 성경적인 교육과 자율성

박진하 소장(홈스쿨지원센터)은 첫째 자녀가 8살 무렵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자녀 4명 모두를 홈스쿨링으로 교육하고 있다. 박 소장은 홈스쿨링을 하면 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홈스쿨러들을 위한 강의와 상담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유도 더 많은 부모들에게 홈스쿨링의 유익을 소개하고 싶어서다. 박 소장이 꼽은 홈스쿨링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성경적인 교육’이다.

“공교육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합니다.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 교육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금그릇 은그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깨끗한 질그릇을 원하시거든요.”

박 소장은 홈스쿨링의 또 다른 장점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꼽았다. 획일화되고 틀에 박힌 교육보다 학생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하는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이 하루 3시간이다. 나머지 시간은 예체능, 문화, 취미 등 은사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 소장의 자녀들은 요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전국일주를 하는 등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홈스쿨링의 단점 사회성 발달과 유대감 부족

물론 홈스쿨링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사회성 발달과 유대감 부족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박 소장은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홈스쿨러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했다.

“아무래도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친구들 만나는 물리적인 기회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 만나는 수가 적다고 친한 친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홈스쿨링하고 있는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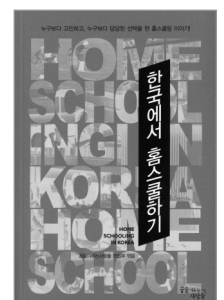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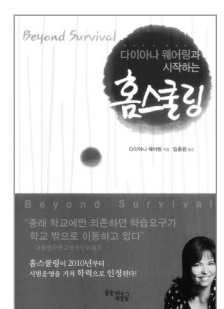
성하고 교체하면서 사회성을 얼마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들이 홈스쿨링하는 부모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의 자질 문제다.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대요.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부모들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하고요.”

홈스쿨링은 분명 성경적인 교육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홈스쿨링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홈스쿨링 교육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자녀교육과 가정교육을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스쿨링 하고 있거나 자녀들을 성경적 교육방법으로 양육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이 몇 권 있다. <자녀 양육의 위기 극복하기>(홈앤에듀), <다이아나 웨어링과 시작하는 홈스쿨링>(꿈을이루는사람들),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야!>(꿈을이루는사람들), <한국에서 홈스쿨하기>(꿈을이루는사람들)가 그것이다. 홈스쿨지원센터(www.homeschoolcenter.co.kr)에서 여는 다양한 강의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 기고

홈스쿨링이 좋은 결정이 되려면...



이은경 성도
(교육학박사, 성북공
동체/2000선교본부
재능기부팀)

홈스쿨링 하면 떠오르는 남매가 있다. 선교 제한 국가에서도 외딴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였다. 외국인이 전혀 살지 않고 통신시설도 불안정한 정도로 외

딴 지역에서 중고생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고생 홈스쿨링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MK(Missionary Kids, 선교사자녀) 교육 현장방문의 목적지를 결정했었다. 또 다른 땅끝인 선교현장에서 남매의 홈스쿨링 상황과 환경, 진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논의했다.

현장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길에 비행기에서 현지의 모습을 내려다보니,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울 정도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만난 남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창조하신 재능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있었다.

선교지 홈스쿨링의 필요는 높지만, 대체로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홈스쿨링을 진행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 남매를 만난 이후에는 누군가 나에게 선교지 홈스쿨링에 대해 질문할 때, 정말 홈스쿨링을 잘 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의 사례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홈스쿨링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배가된 가정을 만나는 경우가 더 자주 있다. 그렇다면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선택한 홈스쿨링인데 왜 가정마다 다른 모습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홈스쿨링의 목적, 무엇 때문에 VS 무엇을 위해

사람들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혹은 “무엇 때문에?”이다.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현실에서 대면하게 되는 불편함이다. 홈스쿨링을 고려하거나 홈스쿨링 관련된 의사결정을 앞두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가정들을 만날 때면, 나는 “무엇 때문에?”보다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에 답해보라고 조언한다. 홈스쿨링의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인 동시에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스스로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홈스쿨링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세속적 가치에 대한 반대로, 혹은 자녀들이 일반적인 친구들과 조금 다르거나(학교부적응, 영재성, 특정 재능 등),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은 홈스쿨링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다. 그 다양한 이유를 목적 중심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성경적 교육을 실천하고자, 자녀의 잠재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홈스쿨링의 목적에 대한 인식 전환은 소극적인 방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도전으로의 마음자세 변화를 가져온다. 홈스쿨링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될 때 홈스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일관성 있게 홈스쿨링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공유하는 홈스쿨링의 목적이 명확할수록, 홈스쿨링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홈스쿨링의 장점 최대한 살리기

홈스쿨링에는 여러 장점이 있고, 일반 학교와 대비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유연한 시간 사용이다. 홈스쿨링은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이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고, 매일 혹은 매주, 매달의 계획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일반 학교생활과 똑같은 시간의 틀을 홈스쿨링에 적용하는 것은 홈스쿨링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집중해서 공부할 것, 시간을 두고 체험할 것, 매일의 연습이 쌓여야 할 것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시간배치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일상의 규칙은 필요하고, 규칙이 홈스쿨링을 지속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반복적인 일정에만 매여 있게 된다면 홈스쿨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된다.

홈스쿨링의 또 다른 장점은 자녀의 필요와 특성에 맞춰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틀과 다른 것을 선택하고도 일반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그 안을 채우려 한다면 홈스쿨링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더 작은 틀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시도한다면, 자유로운 시간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홈스쿨링의 장점이 드러나기 어렵다. 자녀의 필요와 특성에 맞춰 집중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홈스쿨링은 주로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질까? 홈스쿨링 결정은 많은 경우 부모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홈스쿨링을 결정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든 부모의 신앙, 세계관, 철학, 교육관 등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홈스쿨링이다.

이렇게 부모의 선택으로 시작된 홈스쿨링이 진행되면서,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

자녀의 성향이나 연령대에 따라 홈스쿨링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10세 미만의 홈스쿨링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리 문제되지 않던 부모의 주도권이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이 사춘기일 때 부모들이 주도적인 홈스쿨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홈스쿨링도, 부모-자녀 관계도 어려워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자녀에게 홈스쿨링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며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부부 간에 또한 부모-자녀 간에 홈스쿨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합의해갈 수 있다면, 홈스쿨링 자체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홈스쿨링 공동체를 만들어라!

나쁜 마음으로 자녀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결정이 설익은 열매가 되어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여전히 홈스쿨링은 적은 수의 부모들이 선택하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결정한 자녀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거나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진로나 진학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현실적인 대안들이 미리 준비되지 않아 진로·진학을 해야 할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만나기도 한다.

홈스쿨링 과정에서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홈스쿨링 공동체이다. 한 가정의 부모가 모든 것을 아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부모들이 공동체로 모인다면 각각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홈스쿨링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홈스쿨링을 고려한다면 또는 진행 중이라면, 홈스쿨링 공동체에 속할 것과 홈스쿨링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것은 자녀가 가진 특정한 상황에 따른 대처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교육제도에 대해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을 자녀와 함께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선택하고,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온 누리 모든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가족들이 모여 연대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회사 홍보팀에서 알면 혼날 것 같은데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본지와 인터뷰를 어렵게 수락한 강신봉 집사(한강공동체)의 첫 마디다. 강신봉 집사는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 및 배달음식 주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기요’의 대표이다. 회사 대표로서 사업과 관련한 인터뷰는 많이 했지만, 본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터뷰는 모두 거절해왔다. “내세울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인터뷰를 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순종이다. 공동체 담당목사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수락했다. 인터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강신봉 집사와 그의 아내 유경아 집사를 겸손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다. 요즘처럼 갑질이 만연한 때 대표라고 으스대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담당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감사와 최선이 성공 기준 아닐까요?”

‘요기요’ 대표 강신봉 집사와 그의 아내 유경아 집사

강신봉 집사와 그의 아내 유경아 집사의 첫 인상은 참 겸손하고 소박했다. 유명 회사의 대표이자 사모님인데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신앙이 그들 부부를 그토록 겸손하게 만든 걸까? 유 집사가 남편 강 집사를 전도했다. 사실 강 집사가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 천주교 집안이어서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다녔다고 한다. 게다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미션 스쿨을 나왔다. 그 덕분에 찬송가, 채플, 예배가 생활의 한 부분일 정도로 익숙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개인적인 믿음이 없었다. 강 집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아내 유경아 집사 덕분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에서 MBA 과정을 공부할 때였다.

“아내가 저만 믿고 미국까지 따라왔는데 낯설고 물선 곳에서 생활하는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아내에게 교회에 가자고 제안했었어요. 아내에게 도움을 주려고 교회에 갔다가 제가 도리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온누리교회에는 2006년부터 나왔다. 미국에서 귀국하면서부터 출석했다. 귀국을 앞두고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 성도가 온누리교회를 추천했다.

조카 입양 그리고 혹독한 시련

강 집사 가족은 2009년 또 다시 이국생활을 하게 됐다. 강 집사가 중국에서 일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상해 온누리교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중국 생활은 오히려 적응하는 게 쉽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상해에서 생활하는 동안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 집사 부부가 힘들었지만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그때 유 집사의 조카를 입양했기 때문이다. 유 집사의 큰언니가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식물인간 상태로 10년 동안이나 쓰러져 있다가 소천했다. 큰언니가 쓰러졌을 당시 조카는 겨우 100일 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조카는 10살이



겸손과 순종의 미덕이 돋보이는 강신봉, 유경아 집사 부부.

넘도록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 조부모가 큰 사랑으로 키웠지만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다. 조카는 엄마의 사랑을 목말라하며 비행을 저질렀다. 심각한 수준의 비행이자 방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 집사가 너무나 섬뜩한 꿈을 꿔다.

“물이 흘러나오기에 가봤더니 조카가 목매달아 죽어있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 눈을 떴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걱정 되서 기도하는데 조카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한국에 전화해서 엄마에게 조카를 중국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맡아서 키우겠다고요.”

그렇게 조카를 입양했다. 당시 조카 나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그때부터 혹독한 시련이 시작됐다. 유경아 집사는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산(誤算)이었다. 조카는 이미 반항과 불만이 가득 찬 상태였다.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패싸움도 하고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감옥에 갈 뻔한 일도 있었다.

“조카가 안경 쓴 학생의 눈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 적이 있어요. 엄마 없이 이모와 산다고 놀려서 화김에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일이 커져서 살인미수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빼낼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각서도 쓰고, 치료비도 우리가 모두 내겠다고 사정사정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유 집사는 조카를 입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

“조카를 입양한 것도, 같이 살게 된 것도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해해주고 품어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카는 지금 군 복무 중이다. 대학교를 다니다 군대에 갔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다. 강 집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여러 번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도 성숙했지요.”

이번에는 아내의 암 투병

조카도 잘 크고, 강 집사의 비즈니스도 승승

장구했다. 2017년 ‘요기요’ 대표로 취임했다. 이제 걱정거리 없이 안정 되나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또 찾아왔다. 아내 유 집사에게 유방암이 생겼다. 지금도 유 집사는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강 집사 부부가 그 힘든 와중에도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회공동체 식구들의 기도다.

“투병하는 동안 사역팀과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저 혼자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회사일 만으로도 바쁠 텐데 제 병간호와 고등학생 아들 뒷바라지까지 혼자 감당해줬거든요.”

아내의 말을 곁에서 묵묵히 듣던 강 집사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만 할까요? 항암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아내가 몸이 많이 좋아져서 지난 주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를 다시 함께 섬기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처조카를 입양해서 키운 것도 대단하고, 가정과 일도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말 대단하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까지 이뤘으니 어찌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강 집사는 끝까지 손사래를 쳤다.

“한 회사의 대표가 된 것으로 성공했다고 정의하면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유명 회사의 대표가 돼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느냐가 기독교인의 성공 기준이 아닐까요? 지금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유 집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물질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집사 부부에게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다.

“아내의 병이 재발되지 않고 완치되는 게 가장 큰 기도제목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공동체에 희망이 움트다!

희망공동체 성도 20명 희망스쿨 1기 수료

“술 줄였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시비 붙었는데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해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다. 희망스쿨 1기에 참가한 희망공동체(남대문5가, 동자동 인근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이자 간증이다. 희망공동체 20명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12주 동안 실시한 희망스쿨에서 잃었던 희망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들이 예수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이다. 희망스쿨 1기 수료식 현장에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희망스쿨 1기 수료식에서 진행된 세족식.

지난 13일(목) 저녁 서울역 인근 희망홀(용산구 한강대로 363-2 서울빌딩 2층)에서 흥겨운 찬양소리가 흘러 나왔다. 희망스쿨 1기 수료식이 한창이었다. 20명 남짓한 희망공동체 성도, 희망스쿨 봉사자 1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수료식에서 희망스쿨 1기 수료자들은 “서울역 쪽방촌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말씀, 헌신, 관심 어우러진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다

희망스쿨은 사회선교부가 희망공동체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시작한 스쿨이다.

희망스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2주 동안 가르쳐 준다. 은퇴목회자 박윤희 성도가 강의했다. 스쿨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팔복, 십자가의 의미 등 폭넓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나눴다. 희망스쿨의 대미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성령수련회가 장식했다. 최봉운 성도는 성령수련회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믿음 없이 식구들과 교회에 나갔는데 성령수련회에 참석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하

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배드릴 것입니다.”

박은숙 성도는 성경필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적고, 들으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면 좋겠어요. 성경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성경필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희망스쿨 봉사자와 조장들의 헌신이 맺은 열매도 풍성했다. 민경애 성도(양재공동체)는 서울역 근처에서 김광양 성도를 전도했다. 김광양 성도는 민 성도의 권면으로 희망스쿨에 참가했다. 희망스쿨에 갈까 망설여질 때마다 환하게 반겨주는 민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조장님 같은 분이 없어요.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조장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시비가 붙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제게도 작은 믿음이 생겼나 봐요.”

헌신과 봉사, 눈물이 만든 10년 만의 결실

희망공동체 성도들이 말씀, 헌신, 관심이 어우러진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났다. 이인구 형제는 “목요일마다 열리는 반찬카페에서 봉사와 전도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성기 형제는 “이웃들과 연극반에서 자기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무관 형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희망스쿨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린 열매가 아니다. 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눈물이 빚어낸 열매다. 그 열매가 자그마치 10년 만에 열렸다.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김희숙 권사(서초B공동체)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 했을 거예요. 희망공동체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서울역 쪽방촌을 섬긴지는 꽤 오래됐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의 섬김을 시작으로 양재 이웃사랑팀, J4U 공동체, 강남 A공동체 등 다양한 사역팀과 공동체가 섬기고 있다. 매주 목요일 쪽방촌 거리에서 반찬카페를 열어 주민들과 교제하고, 금요일에는 순모임, 토요일에는 서울역 전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 주중에도 틈틈이 주민들과 교제한다. 올해부터는 동자동 인근의 주민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희망스쿨 1기 수료를 계기로 희망공동체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새벽예배, 큐티모임, 순모임, 성경필사 모임 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벌써부터 희망스쿨 2기에 참석하고 싶다는 희망공동체 성도들이 줄을 서고 있다. 올해 9월에 희망스쿨 2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은혜에 목마른 희망공동체 성도들과 서울역 노숙자, 쪽방촌 주민들을 섬겨줄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문의: 02-3215-3434

희망스쿨 참가자 간증

온누리교회를 다닌 지 벌써 4년이 넘어가는데 막상 간증을 하려니 마음이 떨린다. 교회 다니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을 비교했더니 나의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교회를 몰랐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부모 없이 혼자 외롭게 살다보니 술로 인생을 살았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거니와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살았다. 너무 외롭고 막막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었다. 말 못하는 강아지와 10년을 살았다. 그 강아지마저 죽게 되자 미

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의지할 사람도 없이 술에 의지해 살다보니 목숨을 잃어버릴 뻔 했었다.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사람이냐 싶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대문5가에 찾아온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만났다. 성도들은 나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며 비웃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에 술 먹고 못된 말하고 싸우려고 했다. 인간도 못 믿는 세상에 누구를 믿으라는 것인지 불신하며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공원에서 예배드린다고 하기

에 점심이나 얻어먹으려고 간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니 세상에 부러운 게 없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롭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흔들리기도 했다. 성령수련회도 처음에는 의아했

는데 두 번째는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됐다. 지금은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일 순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영생을 굳게 믿고 있다.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 정남애 성도(희망공동체)

“그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여성노숙인들의 자활 돕는 ‘열린여성센터’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역지가 너무 많다.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지와 시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자립교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선교사와 선교지, 소외된 이웃 등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 우리가 도와야 할 또 하나의 이웃과 사역지가 있다. 바로 여성노숙인들과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열린여성센터’다. 수많은 여성노숙인들이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열린여성센터는 위기에 처한 여성노숙인들이 보호받고, 자립심을 길러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귀한 일을 함께해 줄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여기가 열린여성센터인가요?”

주책과 원룸이 가득한 굽어진 골목길을 따라 조금 걸어 들어가면 홍제내 2길 66-10이 나온다. 간판이 없어서 얼핏 보면 일반 원룸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이 바로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열린여성센터’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자리한 열린여성센터는 사단법인 열린복지의 산하시설이다. 사단법인 열린복지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기관이다. 열린여성센터에서는 여성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층 건물인데 정원이 30명이다. 잠잘 곳이 없는 여성노숙인들과 모자 가정 세 가정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열린여성센터에서는 숙식제공은 물론이고, 심리상담, 무료진료 연계 등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험 나들이, 자활서비스 정보제공, 신용회복 지원, 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복지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용산역이나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 가보면 노숙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노숙인이 1만 1,340명이나 된다. 그 중에서 여성노숙인이 25.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숙인들이 적지 않은데 왜 눈에 잘 띄지 않는 걸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온갖 폭력과 위협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 때문이다. 대다수 여성노숙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이나 PC방 등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다른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노숙인들은 남성노숙인들에 비해 성범죄나 구타, 가혹행위 등 각종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노숙 생활 중에 경험한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 비율이 7.2%나 된다. 남성(0.5%)보다 14배나 높다. 구타나 가혹 행위에 대한 피해도 여성노숙인(10.7%)이 남성노숙인(7.3%)보다 높다.

여성노숙인들은 자신을 건드리는 남성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한다. 남성노숙인이 많은 쉼터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면 쪽방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곳 역시 안전하지 않다. 숙곳도 입지 않고 복도를 돌아다니는 남성들 사이에서 숨죽



여성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동네카페 하하하’ (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열린여성센터 식당(아래).

이고 살아야 한다.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여성노숙인들은 시설과 병원, 음식점 등을 전전하며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녀들은 왜 이토록 위험한 노숙생활을 하게 됐을까? 폭력을 피해 또 다른 폭력이 가득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다. 여성노숙인 대부분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뛰쳐나왔다. 여성노숙인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그녀들이 있다’에 나오는 60대 강 모씨 역시 가정폭력 피해자다. 남편의 구타도 모자라 시부모와 시동생, 동서, 시누이에게까지 맞았다. 그들이 왜 때리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 아홉 살 된 자식이 해코지 당할까 봐 그저 맞기만 했다. 자식이 성인이 된 다음 남편과 이혼했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지만 돈이 없어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힘든 여성들의 현실이 그녀들을 거리로 내몰기도 한다.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월세가 밀려 쫓겨나는 여성들도 있다. 찜질방이나 PC방에서 근근이 버텨보지만 비용을 낼

수가 없어 노숙생활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오는 여성들도 있다. 살려고 집을 뛰쳐나온 그녀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따뜻한 보호자

열린여성센터는 여성노숙인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가장 따뜻한 보호자다. 열린여성센터에서는 여성노숙인들에게 전문 상담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노숙인 대부분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여성노숙인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열린여성센터에서는 마음이 아픈 여성노숙인들에게 정기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상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숙식제공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지원, 문화체험 나들이, 신용회복 지원, 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격증 취득반(바리스타, 요양 보호사, 조리사 등) 등 도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많은 여성노숙인들이 열린여성센터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김세영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노숙인들을 볼 때마다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친구였는데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열린여성센터에 오게 됐어요. 이곳에 와서도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퇴소를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친구였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건강관리부터 돈 관리 하는 법,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까지 도왔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열린복지의 다른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회성도 많이 좋아지고, 제과제빵 자격증도 취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이 끊겼던 엄마와 연락이 닿아서 같이 살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열린여성센터와 함께 여성노숙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이다. 후원금은 열린여성센터 시설 운영과 여성노숙인들의 재활과 자활을 돕는데 사용된다. 물품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옷과 신발, 가방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은 여성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비누, 세제, 치약 화장품 같은 생필품들도 큰 보탬이 된다.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티켓이나 도서, 운동용품, 가전제품 등도 후원할 수 있다. 이 귀한 일을 함께 할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다. 홈페이지(www.homelessness.or.kr)나 블로그, 카페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다.

김세영 사회복지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어떤 도움이든 다 좋습니다. 열린여성센터에 오셔서 선생님(여성노숙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열린여성센터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후원/봉사문의: 02-704-5395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301-251526
(열린여성센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강원도에 서린 전도 그리고 순교정신

삼척제일교회, 북평제일교회, 천곡교회를 가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본지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를 깊이 사랑했던 선각자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순례코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장소는 강원도 지역 선교지 및 순교지다. 강원도에는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고,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던 선각자들이 유독 많다. 그 중심에 삼척시 '삼척제일교회', 동해시 '북평제일교회'와 '천곡교회'가 있다. 그 곳에 가면 김한달 전도사의 식지 않는 전도열정과 최인규 권사의 순교정신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강원도 복음화에 힘썼던 김한달 전도사 가족사진(좌), 천곡교회 최인규 권사 순교비(우).



강원도 지역 기독교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한달 전도사다. 그가 발품 판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한달 전도사는 전도열정이 대단했던 인물이다. 김한달 전도사는 강원도 울진군(현 경상북도에서 강원도 동해시를 거쳐 정선군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했다. 그의 헌신으로 삼척제일교회, 북평제일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만큼 곡절도 견뎌야 했다.

김한달 전도사와 그의 아들 김기정 목사

김한달 전도사는 삼척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한학을 배우면서 성장했다. 당시 삼척은 봉건주의와 불교사상이 강하게 뿌린 내린 곳이었다. 김한달 전도사는 일찍이 개화의 눈을 떴다. 1908년 어느 골짜기에서 선도(선인이 되기 위해 닦는 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강릉에서 새로운 종교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신흥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한달 전도사는 강릉 성서회에서 일하고 있던 고재범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홍순철에게 부탁해서 강릉까지 가서 〈한문성경〉을 구해와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은 김한달 전도사는 집안 사당에 모셨던 신주를 모조리 불살랐다. 그 일로 문중에서 쫓겨나는 고초를 겪었지만 말이

다.

1912년 4월 19일 김한달 전도사가 삼척에 기도처를 세웠는데 그 기도처가 삼척제일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삼척제일교회는 지금의 삼척, 동해, 태백시의 모교회로 관동팔경(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일대의 여덟 명승지) 중 하나인 죽서루 앞에 설립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한달 전도사는 삼척제일교회 초대 전도인으로 사역했다. 삼척 김씨 문중을 중심으로 전도에 열을 올렸다. 당시 삼척 지역은 미신이 유독 강했던 바닷가 고을이었다. 그러다 보니 김한달 전도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냉대와 멸시가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또 전했다.

당시 김한달 전도사가 세운 삼척제일교회는 전도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1925년 삼척지역 최초의 기독교 교육기관 '삼성유치원'을 설립해서 교육 사업을 이어나갔다. 일제 말기 교회가 폐쇄되고, 토목관구 사무소(군사무소를 위해 사용된 시설)로 사용되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삼척제일교회는 끝까지 지역사회를 섬겼다. 그 원동력은 숭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겼던 김한달 전도사의 선교정신이었다.

삼척제일교회에 가면 삼성유치원 개원 당시 사진과 1916년 삼척교회 휴향회 사진, 김한달 전도사 가족사진 등을 볼 수 있다.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한달 전도사와 삼척제일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

지를 알 수 있다.

김한달 전도사의 뜨거운 전도열정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회가 있다. 바로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북평제일교회다. 김한달 전도사가 1913년 5월 4일 삼척군 부평읍(지금의 동해시)에 세웠다. 북평제일교회 첫 예배는 당시 삼척군에 살고 있던 김한달의 사랑방에서 성도 13명이 함께 드렸다. 찬송가 89장을 부르고, 마태복음 5장 1절을 낭독했다. 설교는 김한달 전도사가 '영생'을 주제로 했다. 김한달 전도사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이 하나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였다. 김한달 전도사는 북평제일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다.

김한달 전도사의 전도열정은 만아들 김기정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기정은 북평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 받아 삼척지역 첫 번째 목회자로 활동했다. 일제의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며 신앙을 지켰던 최인규 권사를 전도하기도 했다. 북평제일교회를 방문하면 김한달 전도사와 그의 아들 김기정 목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최인규 권사의 신앙과 나라 사랑

강원도 지역에 아주 저명한 순교자가 있다. 감리교 평신도 순교자 최인규 권사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천곡교회가 그 거룩한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1932년 최인규 권사는 북평제일교회 기도처

에 불과했던 천곡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 최 권사가 1933년에는 전 재산을 팔아 봉헌한 덕분에 8칸짜리 초가 예배당 천곡교회가 세워졌다.

최인규 권사는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불혹의 나이가 되어서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최 권사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고자 하루하루 술로 보내고 있었는데 북평제일교회 김기정 목사를 만난 뒤 인생이 달라졌다. 김기정 목사로부터 보살핌과 기도, 관심을 받으면서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모두 끊고 집안 대대로 섬기던 성주단지(성주의 신체로 여기고 집안에 모셔 두는 단지)와 제기(제사에 쓰는 그릇)를 불살라 버렸다. 1925년 최인규 권사는 김기정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었고, 12년 동안 북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사 직분을 받았다.

1930년대 일제는 조선의 민족말살 정책과 황국식민화정책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신사참배, 동방요배(아침 해가 뜰 때 동쪽(일본)을 향해 절하는 의식), 창씨개명 등을 강요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하는 수 없이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받아들이고 타협했다. 하지만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저항했다. 그 이유로 최인규 권사는 1940년 5월 삼척경찰서에 체포돼 취조를 받았다. 형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서 국가 의식을 존중해 달라라는 것 뿐"이라고 회유도 해보고, 가혹한 고문도 했지만 최인규 권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신사는 일본 민족의 종교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만 단 순한 국가행사일 수 없다."

1941년 11월 최인규 권사는 함흥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중에도 최인규 권사는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의 발언에 격노한 재판관이 단상을 내리치면서 불경죄로 징역 2년형을 언도했다. 대전형무소에 투옥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됐다. 결국 그는 1942년 12월 대전형무소에서 순교한다.

천곡교회에는 최인규 권사가 직접 만든 강대상과 그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는 순교비가 있다. 천곡교회의 역사와 최인규 권사의 순교 과정을 설명해주는 배너가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최인규 권사의 나라 사랑과 감동적인 신앙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다.

김한달 전도사와 그의 아들 김기정 목사, 최인규 권사에 이르기까지 굳건한 믿음과 나라 사랑을 몸소 보여준 강원도 지역 선각자들의 삶을 따라 가다보면 탁 트인 바다와 푸르른 산 자락보다 멋지고 풍성한 나라 사랑과 신앙을 만날 수 있다.

전문가 기고

크리스천과 빚

재정절벽에 서 있는 크리스천을 위하여

신용카드 자르고, 빚으로 투자 금지, 빚 목록 작성, 부업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

얼마 전 재정 강의를 하고 있던 교회 의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수입으로는 도저히 갚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다. 휴대폰으로 들려오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 분을 돕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싶었다. 나는 채무상환에 대한 법적인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드리고, 회생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다.

매월 카드대금을 이 카드 저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고, 점심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축의금이 부담되어 지인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는 등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라는 절벽 끝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빚을 포함한 재정적 절박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

열왕기하 4장 1~7절에는 과부의 기름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아들들까지 채권자의 종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과부의 사연이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르밧 과부가 등장한다. 사르밧 과부는 집에 있는 재료(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를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 고백했다.

이 두 이야기보다 훨씬 앞선 모세율법에서는 채무자와 노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빚과 노예 모두 회년에는 해방이 되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종으로 팔렸다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구약시대부터 과도한 빚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재정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크리스천들이 범하는 가장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한다.”

큰 실수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부채로 인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을 거야’라고 지레짐작한다. 마치 욕의 엄청난 고난 앞에 회개를 촉구했던 친구들처럼 말이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재정적 필요를 도와야 한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재정적 궁핍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떤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를 파헤치고 추궁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이다.

빚더미에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빚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신용카드를 잘라라.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편리하고, 각종 포인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예산론을 펼친다. 그러나 단언컨대 신용카드야말로 인류가 개발한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필자가 재무상담을 진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플라스틱 하나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고통당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신용카드는 충동구매를 일으켜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게

만드는 힘이 있다. 신용카드가 실제로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절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반으로 잘라버리는 수술을 감행하고, 그 이후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의 2배이다.

둘째,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세상은 ‘레버리지 투자’라는 이름으로 빚진 돈으로 투자하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5% 이자로 대출을 받아 연 10% 이자를 준다고 하는 1년 만기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투자상품 설명서대로 잘 운용이 된다면 만기시점에 5,500만 원을 받아서 대출 원리금 5,250만 원을 갚고도 25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혹여 투자회사에서 약속한 상품설명서대로가 아니라 허위나 거짓으로 투자되어 원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5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투자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 하더라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과도한 빚으로 재정절벽에 서 있을 때에는 투자 이전에 최대한 빨리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지혜롭다.

셋째, 빚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채권

자들을 만나라. 한때 최고 인기를 누리며 많은 돈을 벌었다던 방송인 이상민 씨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지만 자신을 믿어준 채권자들을 위해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그들을 일일이 만나 채무상환에 대해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과도한 빚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본인이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대출이자 얼마인지 등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빚더미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진 모든 채무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 이자가 높은 순부터 먼저 갚아나갈 수 있고, 이자가 비슷하다면 대출원금이 적은 것부터 상환해나가면서 심리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이상민 씨처럼 직접 채권자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상환계획을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는 것이 지혜롭다. 문자나 전화로 “언젠가는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하는 것보다 정확한 상환계획을 세워서 신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넷째, 부업을 시작하라.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주업무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이 빚을 갚아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주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권한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씩 채무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예화에서 보듯이 우리는 과부가 어떠한 이유로 빚을 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진 빚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우리 주변에 이 과부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로 크고 작은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교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롬 13:8)는 말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라며 자기합리화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켜 살펴봐야 한다. 집, 자동차, 옷, 음식 등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은행이나 돈 많은 채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만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던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기름 그릇을 모두 채워서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아서 생활비까지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골 4:19).

배우 김인권의 울릉도 여행기

25일 오전 11시 20분 CGNTV에서 방영

CGNTV 신규프로그램 <떠나보면 알게 되는 여행의 이유>가 6월 25일 오전 11시 20분에 첫 선을 보인다.

<떠나보면 알게 되는 여행의 이유>는 8명의 여행자(배우 김인권, 가수 홍대광, 사진작가 신미식, 개그우먼 조혜련, 이용규 선교사, 가수 박지현, 배우 성병숙, KBS축구해설위원 이영표)가 여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에서는 배우 김인권이 30년 친구이자 매니저 임찬복 씨와 동행을 주제로 떠난 울릉도 여행기를 담았다.

한편 CGNTV 여성운영위원회가 오늘(23일) 양재 온누리교회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자선장을 연다.



배우 김인권이 30년지기 친구와 울릉도 여행을 떠났다.

자선장 수익금은 CGNTV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원 모집

지원(기도, 간식 등), 공사(목공, 미장, 설비 등)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 봉사자를 모집한다. 사역분야는 지원(중보기도, 의료, 운전, 간식, 행정, 사진, 디자인, 재정, 차량), 공사(목공, 미장, 조적, 전기, 설비, 철공, 방수, 도장 등) 분야다.

임수길 팀장은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늘 애써주시는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에 감사하다”며 “한 군데라도 더 많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원형카페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시회에는 그동안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이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흘린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문의: 02-570-731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사랑합창단 단원 모집

오디션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온사랑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3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다. 오디션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층 누리홀에서 열린다. 자유곡 1곡(악보 지참)을 준비해오면 된다.

온사랑합창단은 2011년 6월에 창단했다. 학교, 관공서, 기업 등지에서 한해 평균 16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기연주회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도 하고 있다. 문의: 010-8784-6695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 개최

6월 25~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2019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가 오는 6월 25일과 2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막 오른다.

2019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에서는 ‘관계의 용량’, ‘고통과 6가지 감정 나누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애착을 점화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짐 와일드 목사(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의 저자와 크리스 코치 목사(관계의 기술)의 저자가 강의한다.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회복사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http://recovery.onnuri.org
문의: 02-3215-3355

평택M센터 물품 모집

평택M센터 몽골어배에서 이주민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할 의자 20개, 빔프로젝터 1대, 전기밥솥 2대, 냉온풍기 1대, 전자통기타 1개 등이다. 문의: 010-6343-7588

샤이닝글로리 80기 개최

샤이닝글로리 80기가 오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파주 솔수양관에서 개최된다.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7월 3일까지 아이스쿨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8만 원이다.

문의: 02-3215-3744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995	백진숙	부천 Dream	1136026	강송희	여호수아	1136052	공이슬	J4U	1136087	김학수	Point5
1135996	정미경	수원 SEED	1136027	배윤서	여호수아	1136053	신소영	J4U	1136088	박경선	S브릿지
1135997	김택근	수원 SEED	1136028	김소리	여호수아	1136056	윤미희	양재	1136089	유상철	부천 희락
1135998	임석원	수원 SEED	1136029	임종수	여호수아	1136059	문경원	강남C	1136090	신광배	SNS
1135999	지수연	수원 SEED	1136030	최보배	여호수아	1136060	김주봉	송파A	1136091	임성혜	SNS
1136000	박예은	수원 SEED	1136031	최보라	여호수아	1136061	최은영	S브릿지	1136092	이연재	SNS
1136001	김영민	수원 SEED	1136032	정두현	여호수아	1136062	이동화	양지 서누리	1136093	박효진	SNS
1136002	박종원	수원 SEED	1136033	김선욱	여호수아	1136063	박재현	서초C	1136094	이형주	SNS
1136003	양 찬	수원 SEED	1136034	박진정	여호수아	1136064	김인선	인천 소망	1136095	임정민	SNS
1136004	고도규	수원 SEED	1136035	최새롬	여호수아	1136065	이선민	강동 말씀	1136096	박상보	SNS
1136005	정현기	인천 사랑	1136036	장윤경	여호수아	1136066	하인희	이수	1136097	박윤하	SNS
1136007	김부자	관악금천	1136037	손은주	여호수아	1136067	유경희	인천 믿음	1136098	유동호	SNS
1136008	송승원	허브	1136038	계원경	여호수아	1136072	장해주	진세골	1136099	구중구	SNS
1136009	유현주	부천 사랑	1136039	조아라	여호수아	1136073	김종영	진세골	1136100	이진아	SNS
1136011	박수현	인천 소망	1136040	전영식	양재	1136074	김미경	진세골	1136101	조인화	SNS
1136012	오종현	인천 소망	1136041	변윤재	강남A	1136075	박수진	부천 소망	1136102	정 진	SNS
1136014	김진찬	웅산	1136042	정영현	강남B	1136076	윤정희	인천 소망	1136103	김정열	고양은행
1136015	라민선	분당B	1136043	신유진	허브	1136078	강지원	S브릿지	1136104	강창희	Point5
1136016	이재현	Point5	1136044	김현민	허브	1136079	김미진	Point5	1136105	김수정	OEM
1136018	김장호	강남A	1136045	장한별	허브	1136080	최현주	강남A	1136106	한트 일렉스	강동 말씀
1136019	윤철환	인천 소망	1136046	변종혁	허브	1136081	유기웅	강남A	1136107	강성호	양재
1136020	이지환	J4U	1136047	김진하	J4U	1136082	김수진	대청공동체	1136108	권순범	SNS
1136021	조준연	J4U	1136048	이우석	J4U	1136083	김미진	대천 남누리			
1136022	김혜정	인천 소망	1136049	임경찬	J4U	1136084	강윤이	S브릿지			
1136023	이철호	인천 소망	1136050	정수민	J4U	1136085	김하림	SNS			
1136025	유예린	여호수아	1136051	손동준	J4U	1136086	류예은	SNS			

두란노바이블칼리지 7월 세미나

기독교상담특강 마음코칭, 일일기도특강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독교상담특강 ‘마음코칭: ‘감정’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세미나가 7월 1일과 8일 오전 10시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열린다.

조병은 소장(마음과감정상담연구소)이 강의한다. 감정 언어를 이해하고, 정서적 소통법에 대해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2만 원. 6월 24일까지 신청하면 2만 원 할인해준다.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의 실제 주인공 박수가 선교사의 삶을 통해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진실된 헌신과 봉사가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아웃리치 팀장을 소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진다.

문의: 02-2078-3456,

www.biblecollege.or.kr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선교지에서 온 편지



결혼식장에서 드리는 예배

/ 손충성, 송이레 선교사(터키)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예배 장소가 좁아져 지난 1월부터 성인들은 매주 결혼식장을 빌려 예배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일찍 모여 결혼식장의 식탁들을 치우고, 의자를 재배열하고, 악기를 세팅하고, 화려하고 산만한 결혼식장 벽면을 가리기 위해 배너를 세웁니다. 예배와 나눔이 끝나면 결혼식장을 원위치 시키기 위해 수고스러운 작업을 또 합니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이 일들을 겪으며 형제자매들에게 주인의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공간이 넉넉해져서 주일모임이 매우 안정적이게 됐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여전히 주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장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 터키’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터키를 섬기기 위해 3개월, 1년, 3년을 작정하고 자신의 계획과 직장을 내려놓고 미국에서 들어온 젊은이들입니다. 이 팀들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관계전도를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북클럽이나 영어배우기 클

래스 등을 운영하면서 전도대상자들을 찾고, 그들을 매주 토요일에 드리는 영어예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인 10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터키어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새신자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명의 자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터키는 위험한 나라라고 여겨서 단기선교팀이 오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 터키에 오는 단기선교팀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중고등학생팀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팀들이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역과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키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그리스, 튀니지, 이집트 등을 연결해서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기도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터키에 한 번 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 호스피스 스쿨 참가자 간증



/ 성명심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죽음, 가장 큰 선물

올해 1월 27일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 집을 떠나 병원으로 가신지 40일 만에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셨다. 엄마의 죽음 이후 죽음이 다르게 다가왔다. 죽음이 가깝게 느껴졌다. 엄마는 아빠가 목사님으로 은퇴하시면서 아프기 시작하셨다. 평생 사모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다. 항상 교인들 편에서 서서 배려하고 위로하면서 정작 자신이 힘든 줄은 모르셨던 것 같다. 심장병과 우울증, 위암에 치매까지 엄마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다. 아빠는 엄마에게 좋다는 약을 다 먹이며 항상 옆에 계셨다.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과 약을 피하셨다. 가족들 몰래 음식과 약을 수없이 뺏어 내셨다. 엄마는 식사하기도 점점 힘들어하시다가 나중에는 한 달 정도 링거에 의지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새털 같이 가볍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 그 흔한 임종예배 한 번 없이, 곡기를 끊은 것 외에는 아픈 데도 없이 주일 낮에 홀연히 떠나셨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엄마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 호들갑 떨지 말고, 오

히려 죽음을 조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을 탄생만큼이나 귀하게 대하며, 죽음이 새로운 준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헨리 나우웬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의 제목처럼 어쩌면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일지 모른다. 이 책의 내용처럼 죽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연습해야겠다. 죽음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배워야겠다.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마지막 엄마의 모습을 보며 경험했기에 죽음이 그리 슬프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찬양만 있는 천국으로 가셨으니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부럽기까지 했다. 이제는 나의 죽음도 아주 가까이에 있을 것 같았다. 삶이 자연스레 죽음으로 이어지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생과 저생이 그리 먼 곳이 아님을 알기에 그저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이를 배려함으로 담담하게 살아가야겠다. 모든 일을 행복과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수료 간증



/ 신아림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내게 나타난 작은 변화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수료하며 나의 삶에 몇 가지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처음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에 대해 다 체크했던 나였다. 그런데 나는 수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에 눈을 뜨게 됐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침묵하며 기도한 적이 없었다. 하루에 2분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침묵해보기로 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설교 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장소를 예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예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했다. 또한 순모임도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모임을 귀하게 여기며 참석하게 되었다. 평가와 판단하는 일도 그치게 되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신부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지를 느끼게 해주셨다. 내가 귀하신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셨다.

나의 이기심도 바라보게 됐다. 하나님이 무조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며 용납해주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제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때 감사드리며 회개하는 삶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작은 죄까지도 고백하고 돌이키며 살 것이다.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기로 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강료를 받지 않고 선물 포장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 선한 노력이다.

매 순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정에 충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선하게 살고 싶다.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싶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박상민 목사(안산 큰기쁨교회)

답은 전도폭발훈련!

나는 2017년 11월 경기도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다. 이 전도 방법에 한계를 느끼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전도사님을 만났다. 내 이야기를 들던 전도사님이 전도폭발훈련을 권하셨고, 우리 부부는 함께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게 됐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 들었다.

1단계 전도폭발훈련에서 받은 충격은 말로 다 못한다. 스태프, 그룹장, 팀장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월요일이면 목회자 모임도 많고,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우리 부부는 전혀 흔들림 없이 전도폭발훈련을 받았다. 전도폭발훈련이 너무 즐겁고 좋았기 때문이다. 전도폭발훈련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전도대상자들을 만났다. 한 단계씩 올라갔더니 배움과 사역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 느낌이었다.

3단계는 전도폭발훈련의 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3단계 강의를 들으면서 신학교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강의 내용

이 깊고 특히 강사님들의 실력이 너무나 훌륭했다. 늘 기도하며 우리를 찾아주는 모습 또한 큰 은혜가 되었다. 4단계 훈련도 너무 기대가 된다. 요즘은 복음전문을 계속 묵상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위 목회자들에게도 전도폭발훈련을 권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

나는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힘을 얻고 열매를 많이 체험한 큰 수혜자다. 개척교회들이 전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전도폭발훈련을 4명이 받고 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폭발훈련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경험한다. 전도하면서 내 영이 살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고 싶어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전도폭발훈련을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장로칼럼

2019 장로수련회를 마치고



황병원 장로
(양천공동체, 장로
수련회 준비위원장)

지난 6월 7~8일 강원도 평창에서 온누리교회 장로수련회가 열렸다. 올해 장로수련회 주제는 ‘성령 안에 새 생명으로(The Holy Spirit, Breathe New Life in Me)’였다. 2019년 온누리교회의 표어인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2월 초부터 장로수련회 준비에 들어갔다.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장로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두고 기도로 준비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할 22명의 준비위원 장로님들도 위촉했다. 준비위원으로 위촉된 장로님들은 사역의 배경도 다르고, 지역과 공동체도 달랐다. 하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장로수련회를 준비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회의 때마다 서로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큰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준비위원들에게 부여하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했다.

정기적인 준비위원모임과 토의를 통해 장로수련회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준비위원들은 맡겨진 분과대로 세부적인 사역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분과별로 프로그램 개발, 큐시트 제작, 핸드북 디자인, 참가인원 파악, 조장 장로 위촉, 중보기도, 숙소 배치, 식사 및 간식 준비 등 장로수련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4개월에 걸쳐 준비됐다. 장로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과거 수련회를 참석 할 때 준비위원들의 수고가 이렇게 큰 줄 몰랐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장로수련회를 준비하며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QQ(영국의 케이커 교도들이 공동체에서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질문했던 내용)였다.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의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장로들이 사역을 같이해도 서로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QQ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다. QQ에 대한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장로님들이 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행복했던 순간 등을 이야기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장로수련회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QQ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로님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주제 토론이나 영상 만들기를 통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로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어 참 감사했다. 장로님들이 성경 40주절을 암송하는 시간도 큰 은혜였다.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수련회에 모인 모든 인원이 큰 감동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퀴즈 대회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집중력을 발휘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2019 장로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이 지면을 통해 장로수련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준비위원들과 수련회를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성령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권사칼럼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



서동화 권사
(경기A공동체)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누리 전도학교가 5년 반 동안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전도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온누리 전도학교에서는 매학기 참가자를 모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온누리 전도학교 10기를 마무리하며 스태프들과 수료생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11기 온누리 전도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과 두 총무가 모여 먼저 회개하며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나를 포함한 리더십 3명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다. 함께 섬겨줄 스태프들을 위한 기도와 수료생들을 위한 기도도 올려드렸다.

나는 지난 학기부터 전도학교에서 강의 맡게 되었다. 내 강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 질문들은 내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우리가 채우기 위해 비울

것이 무엇인가? 둘째, 내 앞에 있는 옮겨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면 전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전도를 전도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출석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 역시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교회에 나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고 열여섯 번이나 핑계 대며 미루다가 열일곱 번째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 아버지 생신모임을 포기하고 그분을 모시러 갔던 적이 있다. 하지만 또 미루며 다음을 기약하셨다. 그래도 나는 그 다음 주를 약속하며 기쁨으로 돌아섰다.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열매 맺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곽상학 목사
(온누리교회 협동목사,
다음세움선교회 대표)

1929년 10월, 미국 웨스트리트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그 여파로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었다. 대공황 발발 후 3년 동안 미국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했으며, 대공황이 절정에 달한 1933년에는 미국의 실업자가 무려 1,500만 명에 육박했다.

모두가 힘든 1930년대에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가 한 편 발표되었다. 프랭크 바움의 동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원작으로 만든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이다. 미국 캔자스 농장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에 휩쓸려 신비한 나라 오즈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도로시가 애완견 토토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에메랄드 시티를 향하는 길을 환상적으로 묘사했다. 먼치킨랜드의 먼치킨들이 도로시를 향해 “노란 벽돌 길을 따라가세요(Follow yellow brick

road)”를 노래하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 노란 벽돌 길에서 뇌가 필요한 허수아비,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용기가 필요한 사자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는 도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토록 만나려 했던 오즈의 마법사가 사기꾼으로 밝혀지고, 도로는 저 무지개 너머(Over the Rainbow)에 있는 집을 그리워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도로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란 벽돌 길을 열심히 걷고 또 걸었다.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발표된 지 꼭 80년 만인 2019년, ‘로켓맨’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발표되었다. 살아있는 팝의 전설 ‘엘튼 존’의 삶을 다룬 뮤지컬 전기 영화이다. 엘튼 존은 내한공연을 세 차례나 할 만큼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그의 수많은 히트곡 중 하나인 ‘Goodbye Yellow Brick Road’는 피곤한 도시의 삶을 떠나 시골에 정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금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에 대한 자전적인 비판과 자성이 짙게 깔려 있다. 이 곡에서 말하는 ‘노

란 벽돌 길’은 바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따온 것으로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길이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황금색같은 노란색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벽돌로 만들어진 이 길은 꿈과 환상의 길이자 가장 완벽한 길이었다.

“이 백성은 그치지도 않고 동산에서 우상에 제물을 바치고 벽돌 제단에 분향하면서 언제나 내 화를 돋우던 백성이다”(사 65:3).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될 것 같은 이 완벽한 황금 탄탄대로는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길이지만,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하는 현대인들에게 잡히지 않는 신기루만을 보여줄 뿐 그 어떤 활로(活路)로 대체될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어떠한 길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岐路)에 선 다음세대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한 학교 청소년들의 희망직업 리스트에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와 사금융의 다른 얼굴 ‘고리대금업’이 오른 적이 있었다. 돈만 많이 벌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트레빈 왁스는 그의 저서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에서 현대인들이 섬기는 여섯 가지 우

상을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이라고 말하며 우상들의 매혹적인 율가미에서 벗어나 부단히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인생의 분투가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했다. 나의 나라를 짓는 것에서 떠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떠남과 따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떠남과 따름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가득한 보좌를 떠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매혹적인 노란 벽돌 길 앞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먼치킨들이 노래한 것처럼 노란 벽돌 길을 따라갈 것(Follow yellow brick road)인지, ‘로켓맨’에서 엘튼 존이 노래한 것처럼 노란 벽돌 길을 떠날지(Goodbye yellow brick road) 말이다.

오즈의 마법사를 만난 후 도로시가 했던 고백은 “집만한 곳이 없어요”였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렘 10:6).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눈물로 고백한 그는 주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임을 알고 있었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성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카페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광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네팔 포카라 재능기부 아웃리치팀원

모집

일시: 8월 13일~19일(+1)

장소: 네팔 포카라

비용: 항공비 별도, 개인화비 30만원

분야: 이마음, 한국음식, 탁구, 악기(기타),

한국어, MK교육, 진로상담, 교사강습 등

문의: 이생명 선교사(010-2902-2763)

두란노서원 IT사업부 채용

인원: 2명 정규직(수습 3개월)

업무: 웹사이트, 모바일앱 개발

자격: 웹, 퍼블, 앱 개발 경험자 우대

접수: www.duranno.com/recruit

마감: 6월 23일(주일)

CMN BEE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3일~28일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분야: 비의료인, 치과, 약사, 피부과, 산부인

과, 간호사, 미용

비용: 130만원

문의: 한정식 팀장(010-9083-419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광: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CGNTV

여행의 떠나보면 알게되는 이유

6월 25일 (화) 오전 11시 20분 첫 방송

길 위에서 만난 낯선 풍경과
새로운 인연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배우 김인권의 오랜 친구와 떠난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1화 울릉도 편 배우 김인권의 오래된 동행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